



종자돈 마련의 허구

새 지폐, 보기 힘드네

1천원권·1만원권 등 발행 10일 지나도 '도안 교체 가능성'에 보존수요 더 많아

새 1만원, 1천원 지폐가 발행된 지 열흘이 넘었으나 실제 상거래에서 새 지폐가 쓰이는 경우는 아직 드문 편이다.

1천원권의 경우 시중유통 물량 가운데 새 지폐의 비중이 10%를 훌쩍 넘어섰으나 택시운전자들이나 재래시장 등에서는 신권을 구경하기가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 지폐 발행 후 초반 일정기간에는 호기심 등으로 인해 새 지폐의 거래수요보다는 보존수요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새 지폐의 도안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 새 지폐 보존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도 한가지 요인으로 여겨진다.

즉 '혹시라도 지폐의 도안 문제점 때문에 디자인이 교체된다면 단명한 신권의 희소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새 지폐 발행 후 지난달말 현재 1천원권은 유통점유율이 12%를 넘어섰으며 새 1만원권도 10%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 시중의 유통지폐 가운데 10종 1장은 새 지폐인 셈이다.

그러나 실제 거래비중은 1%도 채 못 되는 편이다. /연합뉴스

저축만 하면 돈 모아지고 땅만 사면 돈 되는 시대 지났다

재무설계를 통한 뚜렷한 목표에 도달해야

사람들이 재테크를 위해 종자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맹신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특히 과거 고금리 및 부동산 가격 상승기 시절에 일어난 은행에 저축하고 목돈을 찾아 이를 대출금액과 합쳐 부동산에 투자하면 가격이 올라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고, 이를 매각하더라도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던 시절의 성공사례로 인한 학습효과일 것이다.

그러한 방식이 만만치 않음을 깨달을 수 있다. 과거 10%를 상회했던 예금 금리는 4%대로 물가상승률을 극복하기 어려워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목돈 마련을 위한 투자재원이 주시적으로 몰려들었음에도 KOSPI지수가 840에서 1,400으로 뛰었던 2005년 개인투자자들은 1조 6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간접투자가 활성화 돼 2007년 1월 현재 주식형 펀드의 수탁고가 채권형 펀드의 수

탁고를 넘어서 50조원에 근접했음에도 장기투자하지 않고 단기 차익을 선호하는 투자문화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실질적인 수익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의 경우도 크게 다를 것이 없어서 과거 주택가격이 올라 이를 양도했을 경우 현실화 돼 있지 않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강화 및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결국 과거와 같이 목적없이 일단 모으고 종자돈부터 마련하고 보자는 투자방식은 현재의 투자환경에 맞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목돈을 만들더라도 재무설계를 통해 돈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목적 없는 종자돈 마련이 일단 자동차로 드라이브했다가 하차할 때, 재무설계를 통해 재무목표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자동차로 이동할 것인지, KTX를 탈 것인지, 아니면 항공편을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상반기 업종별 취업 체크포인트 금융-인성 중시... 관련 자격증 우대 건설-친화·리더십 갖춘 실무형 인재 조선-어학 필수·글로벌 경쟁력 선호

상반기 취업시즌이 다가오면서 업종별 채용시장 흐름과 취업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맞춤형 인재'에 대한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구직자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춰 목표분야를 설정한 뒤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전략이 필수다.

1일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를 통해 주요 업종별 취업전략을 알아봤다.

◇금융 = 최근 금융계 기업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서류전형과 면접 등 기본적인 전형 외에 필기시험이나 인성적 검사를 치르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합숙전형을 도입해 인성적 검사 집단토론, 술자리 평가, 새벽등산, 마케팅 세미나 등으로 지원자의 직무적합성과 인성, 팀워크를 종합 검증하기도 한다.

CPA, 증권분석사, 투자상담사 등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건설 = 현장근무가 많은 업종 특성상 친화력과 리더십이 있는 실무형 인재를 선호한다. 학점이나 어학실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인턴십 등으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거나 대학·동아리에서 리더역할을 했다면 상당히 유리하다.

서류전형과 면접 단계에서 팀워크 협동심, 조직력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동차-조선 = 국내 대표 수출 품목인 자동차 업종이나 해외 수주가 대부분인 조선업계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 해외 각지의 현지공장에서 근무하거나 영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영어 등 어학능력은 필수이며 각 기업들도 대부분 영어면접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지식과 인성을 종합 평가하기 위해 1박2일간 집단합숙면접을 실시하기도 한다.

◇계약 = 계약회사들은 매년 영업직을 중심으로 대졸 신입 공채를 실시하는데 계약 관련 지식을 갖고 있거나, 계약 관련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 유리하다. 영업직의 경우 성실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인성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면접 비중이 높은 편이다. 생명과 관련된 업종인 만큼 인성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전기-전자 = 인력수요가 많은 대신 이공계 채용이 전체의 70~80%를 차지한다. 기술면접과 집단토론 등 면접에서는 전공분야 지식과 과외를 전담하는 발표력 등 직무 전문성이 최우선시된다. /연합뉴스



'외화 세뱃돈 세트' 인기 설을 앞두고 외환은행이 '외화 세뱃돈 세트' 5만개 한정판매를 시작한 1일 광주 지점에서 한 시민이 미국 2달러, 10 유로, 캐나다와 호주 10달러로 구성된 외화 세뱃돈 선물세트를 구입하고 있다. 외화 세뱃돈 세트는 모두 3종류로 광주지점에서만 발매 첫날, 지정 배정분중 80% 이상이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집값 안정 필수... 민간 물량 위축 안돼"

'임대주택 공급 확대' 우선 풀어야 할 과제

연간 5만가구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 등 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내 집이 아닌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장·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며 임대주택이 들어서 지역도 선호할 만한 곳으로 골라 토론투 등 면접에서는 전공분야 지식과 과외를 전담하는 발표력 등 직무 전문성이 최우선시된다. /연합뉴스

KIST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세계 최고 브랜드 만든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인류의 마지막 미개척지로 불리는 '뇌'의 신비를 벗겨내 2016년까지 뇌 과학분야에서 세계 10대 연구소로 도약한다.

또 한국기계연구원은 2020년까지 시속 550km급 초고속 자기부상열차를 실용화하고, 한국건설연구원은 20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슈퍼 교량' 기술을 개발, 2020년경 시험교량을 선보인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들이 연구역량을 총동원해 '세계 최고의 브랜드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선다.

과학기술부는 2일 대덕연구단지 내 대덕컨벤션타운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부 장관 주재로 '톱 브랜드 프로젝트 기관장·연구책임자 간담회'를 열어 각 기관의 세계 최고 브랜드 만들기 추진사례를 발표하고 이의 실현의지를 다진다. /연합뉴스

참여정부 주택정책 '최하위'

부동산학과 교수 등 전문가집단 만족도 조사

부동산학과 교수, 건교부 6급 이상 공무원 등 전문가 집단 96명을 대상으로 1980년 이후 정부의 주택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참여정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1일 전광삼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이 제출한 '한국 역대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만족도'란 제목의 한국외대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7점 만점에 2.59점을 얻어 전두환 정부 이래 최하위를 기록했다.

5공화국 정부의 주택정책이 3.64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노태우 정부(3.57), 김대중 정부(3.46), 김영삼 정부(3.27) 등 순이다.

9개의 세부 항목을 보면 노무현 정부는 가격안정 항목에서 가장 낮은 1.99점(역대 정권 평균 3.32)을 받은 것을 비롯해 경기활성화(2.21), 사회형평성(2.48), 투기조절(2.61), 공급정책(2.53), 내집마련(2.32), 시장중립정책(2.18), 좋은 품질(2.97)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정권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연합뉴스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 개인투자자 확대 검토

보유주식을 대어하는 것만으로 은행 이자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 과실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투자자는 현재 증권예탁원의 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증권사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 대상 대차거래 서비스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탁원에선 증권사의 협조 아래 대차거래 서비스를 개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일 증권실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대차거래금액은 34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5% 급증했다.

2003년 전체 거래대금의 0.8%(6조4천억원)에 불과하던 대차거래금액은 최근 파생상품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증세를 보여 작년 2.7% 수준까지 성장했다. 작년 기준 국내 대차거래금액은 미국의 280년 1, 일본의 50분의 1, 홍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선진시장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준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차거래 = 주식 보유자가 증권예탁원이나 증권사 등 중개기관을 통해 주식 차입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이나 기관에게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집단대출은 DTI 적용 제외

금감원, 여신규준 마련

금감원이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를 확대 적용키로 한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마련했지만 아파트집단대출은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설 때 은행이 이주비와 중도금을 집단적으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1일 금감원이 시중은행에 보낸 모범규준 별첨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집단대출이나 긴급생활안전자금 대출에 대해 DTI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별첨자료에는 주요 은행들이 만든 자체 시안을 요약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금감원은 전담 모범규준 발표시 이 자료는

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시공사의 보증이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DTI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면서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은행들이 좋은 답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또 예기치 않게 많은 병원비와 같은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DTI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금감원에 DTI와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함께 사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및 직업안정성에 따라 DTI 30~50%를 적용하고 실부채비율(대출액/(소득+금융자산))은 100% 이내를 적용하는 안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ment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Table with columns: Job Name, Position, Salary, Start Date, Contact.